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부활 제5주일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냅시다.

• 제1독서

사도 14,21ㄴ-27

• 입당송 시편 98(97),1-2 참조

•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ㄴ(◎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묵시 21,1-5ㄴ

• 복음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3,31-33ㄴ.34-35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갖가지 혼란을 겪어 온 이 나라를 굽어보시며, 이 나라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교리교사들이 아이들을 통하여 기쁨과 주님의 큰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본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고 이웃에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아캠] 온라인 성모성월 특강

- ▶ 일 시 : 5 월 17 일 (토), 16 시 (UAE 시간)
- ▶ 강 사 : 손은경 데레사 수녀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아캠] 공동체별 첫영성체/세례/견진성사

🌸 쿠웨이트

- ▶ 견진성사: 5 월 15 일 (목), 19 시 (대상자: 김덕문 유스티노 / 김세미 율리아 / 김유비 제노 / 김시연 미카엘라 / 윤지민 미카엘라 / 황사영 니콜라오)

🌸 아부다비

- ▶ 첫영성체 & 세례성사 : 5 월 17 일 (토), 12 시
(대상자: 권윤우 암브로시오 / 권지오 루카 / 권아윤 율리야나 / 권제이 마리나 - 첫영성체)
이성진 가우덴시오 - 첫영성체 & 세례
- ▶ 견진성사 : 5 월 20 일 (화), 19 시 (대상자: 경지혜 모니카)

🌸 두바이

- ▶ 세례 & 견진성사: 5 월 22 일 (목), 11 시 (대상자: 이원정 유스티나 / 윤주희 스텔라)



※ 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티칸]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선출

Habemus Papam!



교황청은 5월 8일 (목) 오후 6시 8분(현지 시각)에 제267대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황청 주교부 장관을 맡고 있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교황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교황님 5월 기도 지향

5월: 노동 환경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성취감을 얻고 가정이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부다비 공동체> 주일학교 교리교사 스승의 날 감사 선물 전달



5월 10일 12:00 pm

<두바이 공동체> 어버이날 행사 및 교리교사 스승의 날 감사 선물 전달



5월 11일 2:00 pm

사목 표어: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교황 문장과 사목 표어를 발표하셨다.

교황 문장

레오 14세 교황의 문장은, 교황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뿌리를 두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 주며, 재위 동안에 드높이시고자 하는 가치들, 특히 **교회 안의 일치와 친교**를 명확히 드러낸다.

방패는 사선으로 위아래 둘로 나누어진다. 사선 위쪽은 푸른 바탕에 흰 백합이 그려져 있다. 방패의 사선 아래쪽은 밝은색 바탕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오르게 하는 표상인 화살에 꿰뚫린 심장과 닫힌 책 한 권이 그려져 있다. 이는 하느님 말씀과 이론 인격적인 만남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묘사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회심 체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Vulnerasti cor meum verbo tuo)

사목 표어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또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전통을 반영하는 **In Illo Uno Unum**을 사목 표어로 정하셨다. 이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편 제127편 해설**」(Expositio in Psalmum CXXVII)*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성인은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럿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설명한다.

교황께서는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던 2023년 당시 바티칸 뉴스의 티치아나 캄피시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목 표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의 주교 사목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치와 친교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카리스마의 한 부분이며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저는 교회 안에서 친교의 증진을 위하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친교, 참여, 사명이 시노드의 세 핵심 단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회원인 저에게 일치와 친교의 증진은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편 제128(127)편 성찰은 이 개념의 신학적 기초를 강조한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 머리와 몸으로 — 하나이시며 단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럿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럿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일치하기 때문이며, 머리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그 지체들도 그분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Manificat)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17> 성모님이 나타나셨어요: 루르드

1789년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주동자들은 프랑스 국교였던 가톨릭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상징이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훼손됐으며,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추방되고 살해됐습니다. 이토록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프랑스에 성모 마리아는 자주 발현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 교회를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눈부시게 빛나셨지만,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루르드 근처 마사비엘 동굴에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854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 교황이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믿을 교리로 선포한 지 3년 2개월 되던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물방아 집에 태어난 성녀 베르나데트(벨라뎃다)는 13살이 됐을 때, 마사비엘 근처에서 빨감을 줍다가 동굴 가운데 나타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젊은 부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흰옷을 입고 허리에 푸른 띠를 두른 성모님은 손에 흰 구슬과 금줄로 된 목주를 쥐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맨발로 장미꽃 두 송이를 밟고 서 계셨습니다. 놀란 베르나데트 성녀는 곧장 목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목주 기도가 끝나자 젊은 부인은 사라졌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집에 돌아와 마사비엘 동굴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성모님)은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 베르나데트 앞에 발현하셨습니다. 2월 25일 9번째 발현 때,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샘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으라"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쪽을 바라본 베르나데트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물이 나올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가리킨 곳을 파보니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물은 지금까지도 병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16번째로 나타나신 성모

님은 베르나데트에게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성녀는 부인이 성모 마리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성모님은 "이곳에 성당을 세우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르나데트에게 "앞으로 많은 고초를 겪을 것"이라며, 그 보상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그 말씀대로 성모 발현 목격 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거나, 성모님을 이용해 큰돈을 벌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녀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수군대는 많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르나데트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살이 되던 날인 1866년 7월 8일 그는 느베르 애덕 수녀회에 입회해 평생 자신을 감추며 침묵과 기도·희생·봉사 속에 수도생활을 했습니다.

성모 발현 목격자로서 성녀 베르나데트는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각별한 사랑에 감사하며 순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862년 성모 발현을 공식 확인하고, 1891년 첫 발현일인 2월 11일을 기념일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1992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정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생각도 '죄'인가요?

본당에서 사목할 때 '미사 기도문 중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생각도 죄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들었다. 우선 죄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죄란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은 말과 행동이다.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사람에게 정신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라는 기도문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의 경우는 다르다.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생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무리 능력자이고 초인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지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 사람은 의지적인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데, 무의식적인 생각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심이 바로 무의식적인 생각들이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온갖 불편한 생각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해성사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다면 하느님께 물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미사경문에서 생각도 죄가 된다고 명문화한 것인가? 심리학적인 무지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기때 원천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 의도를 모르고 무작정 기도문을 외울 때 자칫 강박증적인 신앙관이 생길수도 있기에 기도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끈대유머 하나. 본당에서 사목할 때. 한 청년이 미사에 참례하러 왔다. 그런데 영성체를 하려다 말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미사 후 물어보았다.

"왜 그랬니?"

"영성체를 하려는데 갑자기 미운 놈이 생각이 나서 영성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밥 먹다가 미운 놈 생각나도 밥을 안 먹니?"

"아니요. 열 받아서 더 먹어요!"

"그런데 왜 영성체는 안 하는 거니?"

"성체를 영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돼서요."

"아니란다. 미운 놈 생각난다고 영성체 안 하면 너만 손해란다. 생각나더라도 성체는 영하거라."

가끔씩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소금 한 꼬집



내면의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은
빛을 봅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